

## 광주·전남 온열질환자 10명 중 4명은 노동자

온열질환자 66명 중 29명 건설·농수산업 노동자

“부족한 냉방 설비, 실효적 폭염 대책 마련해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올 여름 발생한 온열질환자 10명 중 4명은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사병 예방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사업장 별로 근무 환경에 맞는 충분한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체계적 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7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66명(광주 5명·전남 61명) 중 29명(43.9%)이 건설·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 10명 중 4명이 노동자인 셈이다.

전남은 온열질환자 61명 중 27명이 노동자다. 직종 별로 ▲건설현장·택배업 등 단순 노무 종사자 14명 ▲농민·어업 숙련 종사자 7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명 ▲장차 기계·조립 종사자 2명 ▲서비스 종사자 1명 등이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공장 근로자 2명이 열탈진 의심 증상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오후 3시 12분께 광주 광산구 장록동 한 공장에서 일하던 A(24)씨가 열탈진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

았다.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40분께 영암군 신북면에서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 B(44·여)씨가 발열 증세를 보이며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대비 특별 대응 기간’을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로 정하고 실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제공)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물과 그늘막, 냉방 설비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며, 세부 점검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40대 건설 노동자는 “공사 현장 1층에 그늘막과 정수기가 설치돼 있지만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깨끗한 물을 마시기가 어렵고 고층 현장의 경우 물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개인 물통을 들고 다닌다. 이동식 그늘막도 층마다 설치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 원정사인 경우 형식적인 이뤄지지만 현장 규모가 작거나 영세 업체일수록 폭염 예방 수칙이 안 지켜 진다”고 말했다.

한 택배 기사는 “택배 분류 작업장 내 제빙기 1대와 선풍기 몇 대로 여름을 나고 있다. 물류 자동 분류 장치와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더해져 실내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며 “사업장 냉방 장치 점검을 강화하고 실내 온도 측정 등 세부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은 지난달 30일부터 폭염 특보가 처음 발령된 이후 모든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후 특보 일시 해제와 발효를 반복하고 있다.

정승호기자



지리산 노고단 야생화와 등산객

17일 오전 천상정원 지리산 노고단에 패랭이꽃을 비롯한 임추리, 비비추 등 야생화가 만발한 가운데 등산객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구례군청 제공)

‘무산된 여름방학 무상급식’  
겨울 재추진 협의체 구성

광주시교육청, 시범운영 학교 모니터

이정선 신임 광주교육감의 ‘여름방학 중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소통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유·초등 시범 운영’으로 변경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겨울 방학 재실시’를 목표로 논의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학부모·학교장·종사자·시의회 등 급식과 관련된 모든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무상급식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여름 방학 중 유치원 126곳(3827명), 초·중 150개교 1~2학년 돌봄학생(6290명)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려 했던 ‘유치원·학교 급식소를 통한 점심 무상제공정책’을 철회했다.

다만 유치원 10곳(1200여명)과 초등학교 1곳(75명)이 직접 운영방식으로 여름 방학 중 시계회계를 활용에 따라 시교육청은 예산 2000여만원을 배정해 20여일동안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기존 방식대로 위탁급식, 도시락 등으로 운영하며 비용은 학부모(수익자)가 부담한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시범운영기간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추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노조·학교장·시의회 등 급식과 관련된 모든 단체 등과 협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식중독 우려, 일선 학교가 급식실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 전면 실시계획을 철회했다”며 “여름방학 기간 무상급식을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맛밥이 학부모 등의 방학 중 아이들 밥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며 “시범학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협의기구에서 논의 한 뒤 ‘겨울방학 무상급식 전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방학기간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아이의 점심식사여서 무상급식 추진을 기대했는데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만 피해를 당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겨울방학 때는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아쉬워했다.

오유나기자

## 광주·전남 코로나19 증가세 뚜렷...2000명대 눈앞

광주와 전남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눈 앞에 두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남 발생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광주 937명, 전남 908명으로 모두 1845명이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5월 30일 1045명 이후 40여 일 만에 1000명대 확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1416명을 시작으로 1000명대를 다시 넘긴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에 따라 12일 1664명, 13일 1650명, 14일 1671명, 15일 1701명으로 집계되면서 2000명대를 향하고 있다.

광주 확진자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진행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위중증 환자는 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망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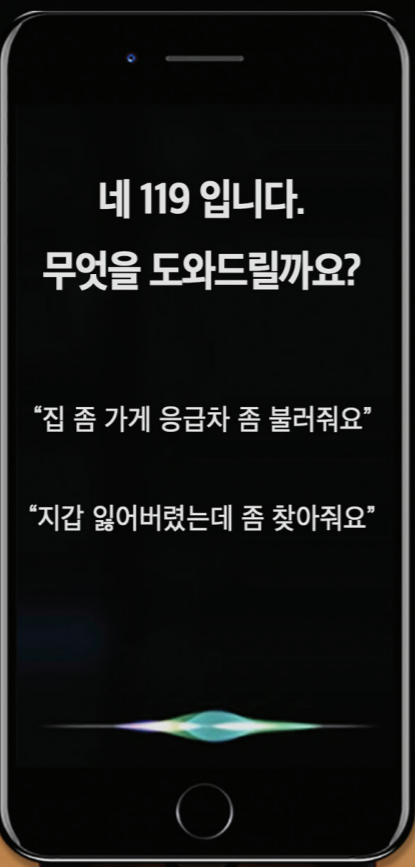
전남에서는 지난 10일 236명을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11일 754명으로 급증한 이후 전남 900명대를 넘었다.

22개 시·군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지역별로는 여수 206명, 순천 157명, 목포 100명, 광양 88명, 나주 52명, 무안 45명, 영광 41명, 장성 34명, 고흥 31명, 구례 24명, 장흥 19명, 담양 19명, 해남 14명, 함평 13명, 보성 12명, 화순 12명, 곡성 10명, 강진 7명, 진도 7명, 영암 6명, 완도 6명, 신안 5명이다.

김재환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